

목 장 예 배

2025 년 7 월 후반기

제목 / 느헤미야의 기도

본문 / 시편 128 편 1-6 절 / 찬송 86 장(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각각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그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니하시고
6. 오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 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복을 돈이나 성공에서 찾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 있는 기도였습니다.

5 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시편 103 편 19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기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 있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확신하는 그 믿음의 바탕위에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5 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박하더라도 마음이 담긴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진정성있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4 장에 보면 산발랏 일당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도에 편성되어 사마리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자 산발랏 일당은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질까봐 성벽 재건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발랏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산발랏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를 놓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4 장 4~6 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처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 장 9 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흠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내 계명을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면의 확신은 환경을 이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평안한 삶, 세대를 이은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편 128 편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복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의 조각들이 회복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말씀과 함께하는 나눔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2. 최근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정답: 1. 확신 2.진정성 3.구체적인 4.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원제: 주만 바라볼지라)

박성호



하나 님 의사-랑을 사모하는자하나 님 의평-안을 바라보는자
 님 깨찬-양과 경배하는자하나 님 의선하심을 닦아가는자



너의 모든것창조하신 우리주님이너를 얼마나사랑하시는 거 하나



자녀 삼으셨 네 하나 님 사랑 의 눈으로-



너를 어느때나바라보시고 하나 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 내너에게기뻐하시 니 어두 움에밝은빛을 비춰주시고



너의작은성음에도 응답하시니너는 어느곳에있-든지 주를향하고



주만 바라볼 지 라 하나 라 주만 바 라 볼 지 라